

충북도, 올해 사회복지예산 전체 36.32%

복지 예산 증가세 전망... 정부 정책 기조 맞춰 추진

고용 분야 국비 확보 위한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예고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단연 사회복지 분야다.

충북도 역시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1회 추경 기준) 도의 사회복지예산은 모두 1조8034억원으로 지난 2010년 8078억원보다 123.25%(9956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8.18%(28.14 → 36.32%) 늘었다.

오는 2020년에도 사회복지예산 증

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도가 확보한 내년도 복지·여성 분야 정부예산은 올해 정부안 1조5천741억 원보다 11.87%(1869억 원) 많은 1조7610억 원이다.

아직 구체적인 도내 각 부서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는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도에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도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10% 인박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도가 정부 추진 복지 사업에 끌려 다니

는 모습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사회복지예산의 국비 비율이 매우 높은 데다, 복지제도의 지역별 편차 발생을 우려하는 정부가 지자체 주도 복지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올해 도 보건복지국(1회 추경 기준) 전체 예산은 1조7천51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와 도비 비율은 각각 77.51%(1조3216억5700만원), 22.49%(3834억9100만원)로 나타났다.

국비매칭 사업에도 재정 부담을 느끼는 도의 입장에선 도 자체 사업 추진은 업무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도 보건복지국 관계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내년도 도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중점 반

영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축소 및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경감 및 자산형성 지원, 장애인 및 소의 아동·청소년 지원에 도 역시 역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고용(일자리) 분야는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일괄 편성해 지역에 각기 배분하는 만큼, 지자체 간 국비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꼽힌다.

특히, 도는 내년도 고용 분야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1.34% (4조5323억 원·21조2374억~25조7697억) 급증한 만큼,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향후 고용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17일 청주아트홀에서 11개 팀이 참가하고 지역주민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치매·중풍극복실버합창제'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제5회 치매·중풍극복실버합창제 성료

건강한 노후 영위·고령질환 극복 가능 인식개선 마련

충북도는 17일 청주아트홀에서 11개 참가팀과 지역주민 등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제5회 치매·중풍극복 실버합창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실버합창제는 어르신들에게 합창을 주제로 한 음악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연습 및 합창제 참여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고, 치매·중풍과 같은 질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 공연은 '사랑은 잊혀지지 않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3세대가 함께하는 특별공연 댄스 퍼포먼스를 포함하여 대상조 꿈송이중창단의 초청공연 등 세대통합의 무대가 펼쳐져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지지를 받았다.

경연 결과 본상 수상팀 중 최고 득점을 받은 청주경노인복지관 다솜합창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상 6개 부문에는 감동상(2개팀),

품격상(2개팀), 화합상(2개팀), 청춘상(2개팀), 예술상(2개팀), 인기상(1팀)을 수여했다.

부대행사로는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와 서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충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각종 홍보물 배포와 무료검사, 캠페인 등이 펼쳐져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과 청소년, 지역주민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행사의 취지에 공감했다.

김용호 도 보건정책과장은 "합창은 어르신들이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합창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치매·중풍과 같은 질환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12회 치매극복의날(9.21)을 기념해 8월 3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치매극복 주간행사'를 개최했다.



충북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18일 청주 체육관에서 '2019 충북 중장년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2019 충북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

베이비붐 세대 구직자 대상 자격증·장려금 등 지원 다양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충북도내 중장년들의 기회의 장이 열렸다.

충북도와 고용노동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충북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주관하는 '2019 충북 중장년일자리박람회'가 18일 청주체육관에서 펼쳐졌다.

올해로 5회째 개최되는 박람회는 도내 취업난을 겪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이직 또는 전직을 희망하

는 중장년층과 퇴직을 준비하거나 이미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 구직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취업에 대한 높은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채용면접 행사 이외에도 무료 증명사진 촬영,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와 면접 클리닉, 중장년 자격증 지원제도 안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 지원,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등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설명하고 컨

설팅도 병행됐다.

이뿐 아니라 1인 창업 플라마켓 시범 운영을 통한 장년층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하며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스스로 인생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충북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현장에서 미처용 된 구직자의 경우 사후관리와 더불어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구인기업과의 연계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구직자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공중이용시설 난청인 편의장비 설치 추진

충북도가 무장애 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청기,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노인·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난청해소 보조기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청해소 보조기기 설치 사업은 평소 보청기 특유의 잡음과 생활소음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 이용 시설에 텔레코일 기술을 활용해 특정소리만을 증폭시켜 주는 편의 장비를 설치하여 난청인이 민원을 상담하거나 문화생활을 할 때 잡음을 없애 선명하고 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사업이다.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인덕션루프, 히어링루프로 불리며 공공기관 등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설치는 물론 잘 알려지지도 않아 설치 및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전국 최초로 난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군·구청 민원실과 문화·복지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장비 30대를 시범 설치하여 노인·장애인 등 난청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사업의 효율성이 검증되면 보건복지부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에는 반드시 설치되도록 제도 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충북도 자살예방 우수 광역지자체 선정

시·도 단위 자살예방 실적 평가서 2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충북도는 10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자살예방 추진실적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년도 자살예방 추진 실적에 대해 3개 부문(기본체계, 시행과정, 성과)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도는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충북도는 자살예방 추진과 관련 기본체계, 시행과정, 성과 모두 전국 평균보다 우수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현황 분석, 정

책적 노력, 도·경찰청·시간간 정보공유를 통한 응급개입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올해 도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예산을 전년 66억 원에서 13억 원 증액한 79억 원(국비 포함)을 편성,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자살, 정신전담인력 14명을 추가 배치했다.

또 도 단위 최초로 자살위험성이 높은 우울증환자의 등록관리 강화를 위한 우울증치료관리비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응급개입 사업 등 자살예방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청주웰치과
CHEONGJU WELL DENTAL CLINIC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지정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교정과 어린이치과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 보험임플란트(65세 이상) 전문 치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6(북대동) 마이크로병원 B/D 3층 T. 043-278-8100 F. 043-278-8006

진천군 '일자리 확대 전략' 입증

주요 고용지표 전국 최상위권... 2년 연속 고용률 1위 지난해보다 0.9P 상승한 70.9%... 우량기업 유치 효과

진천군이 주요 고용지표에서 또 다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일자리 확대를 앞세운 성장전략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진천군은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증가율 등의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달성하며 수년 간 집중됐던 우량기업 투자유치 효과를 뚜렷히 보이고 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진천군의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0.9P 상승한 70.9%로 나타나 4년간(2년) 연속으로 충북내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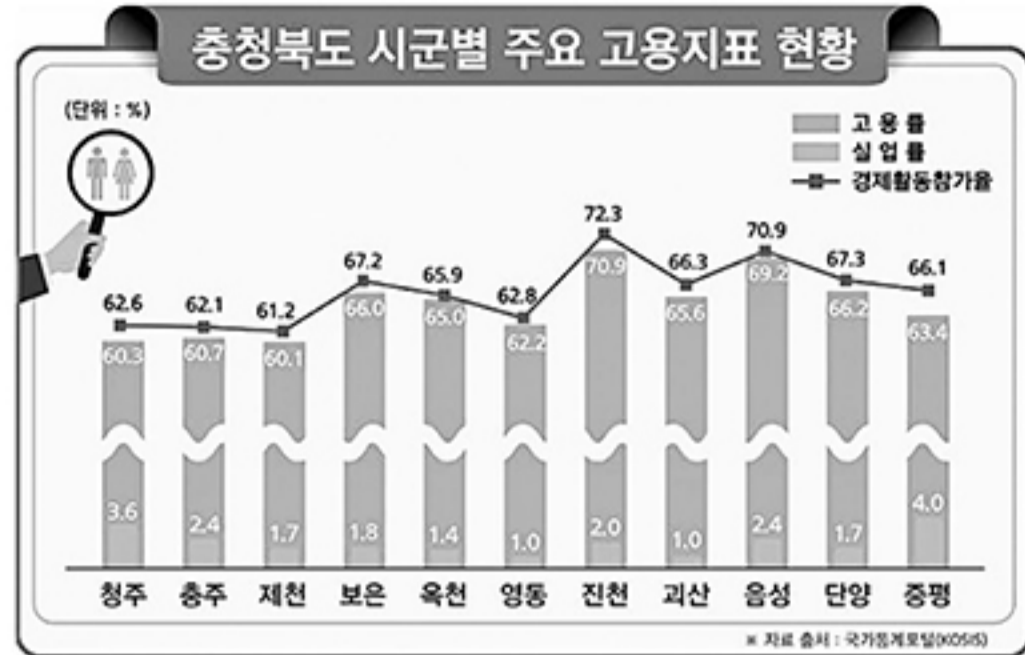
특히 경제활동인구 5만명 이상인 전국 72개 시·군 중 고용률 1

위를 기록할 정도로 최적의 고용 기반을 갖춰가며,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인한 고용하락 현상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기섭 군수가 취임한 2016년 상반기(66.5%) 이후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진천군의 고용률은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한 경제활동인구와 풍부한 지역 일자리가 바탕이 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군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2.3%로 경제활동인구가 5만명 이상인 전국 시·군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최근 3년간 진천군의 취업자수는 약 10,300명이 늘어나



증가를 부문에서 24.88%로 전국 시·군 중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충청북도의 전체 취업자 증가분이 약 27,600명인 것과 비교해 인구 등 지역세를 감안하면 충북에서 진천군의 고용여건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소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라는 지론을 강조해온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역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의 확대는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 확립의 기본적인 요소"라며 "지역별고용조사 통계를 심도 있게 분석해 일자리와 정책정책을 연계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정책을 추진하며 더 큰 지역발전의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균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장애인·노인 돌봄여행서비스 지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본인부담금 2만5천원

충주시는 신제형 특성으로 활동에 제약 받고 있는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여행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

이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시민 중 장애등록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박 2일 프로그램을 기본형으로 서비스 비용은 18만 원이다. 하지만 이용자는 2만 5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기초생활보

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만2천5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여행기간 동안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돌봄 인력이 동반해 귀가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통장사본, 건강보험납부영수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

자를 선정한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 받는 시민들이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를 통해 긍정적 사고와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돌봄여행서비스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복지정책과(☎043-850-5934)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시, 유형 분석해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 구축

전국 최초 '장애 유형 정도별 학습 추진 모형' 개발·추진 경·중에 따라 학습 방향 제시... 교육부 공모도 선정돼

충주시가 내실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올해 장애인 자립과 사회통합 구현을 위한 전문성과 특성화 실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

진한 결과 전국 최초로 '장애 유형 정도별 평생학습 추진 모형'을 개발해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학습의 기반을 구축했다.

이 모형은 충주시 등록 장애인 1만3천329명의 장애 유형·정도

에 따른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의 구조화를 최초로 제시했다.

충주시 장애인 현황 분석에 따르면 경증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구에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이들을 위한 시책지원활동가 양성 과정과 비장애인, 장애인 통합과정 운영 등의 평생학습 특성화, 전문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장애 정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일수록 여가·취미 교양프로그램 위주의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추진해 중증장애인의 학습 참여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시는 이런 모형을 바탕으로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특성과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또한, 시는 장애인 평생학습 분야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 인력 수어교실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및 장애인 연계 프리미리(friend+family), 장애인 반려동물을 만나다,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과정 등을 운영해 240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42명의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강사를 양성했다.

특히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장애인 반려동물을 만나다' 사업은 평소 접하지 못했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시는 하반기에도 '장애인'이라는 평생학습 체험, '장애인 미디어 심리치유를 그린다', '청년강사와 장애인 공감토크' 등 전문화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평생학습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회복지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편집고문김주필 김춘길
(28583) 충북 충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pcsw@chol.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청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소



청주시는 18일 흥덕구 신봉동 옛 차량견인보관소 부지에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청주시가 18일 흥덕구 신봉동 옛 차량견인보관소에서 청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청주시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장애인들을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다는 장애인 부모들의 시설건립 요구

로 추진됐다.

센터는 사업비 35억5000만 원을 들여 5930㎡ 부지에 지상3층, 연면적 1422㎡ 2개 동으로 건립됐고 뇌병변과 발달장애인의 특화된 주간보호실과 집단활동실, 직업훈련실 등을 갖췄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기능 기초훈련, 직업기초기능훈련, 직업생활 기초훈련 등 사회 적응 훈련을 하고 지역 내 장애인 보호 작업장 14곳, 장애인 표준사업장 6곳 등 고용시장으로 옮겨가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은 "맞춤형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추진

소이면 보건진료소도... 공모 선정, 국비 14억원 확보

음성군이 내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소이면 중동 보건진료소 건립에 나선다.

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지원 대상에 이를 사업이 선정돼 국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갈수록 늘어나

는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수요에 맞춰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에 나선다.

내년 말까지 국비와 지방비 19억9천만 원을 투자해 음성군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 국비 등 7억7천만 원을 들여 소이면 중동 보건진료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군은 병·의원과 약국이 없고 보건진료소 이용도 어려운 소이면 중동·갑산·봉천리 주민들의 보건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동 보건진료소 신설을 추진해왔다.

이순욱 음성군 보건소장은 "중동지구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진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양한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를 제공,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군 치매안심센터 본격 운영

지상 1층·495㎡ 규모... 상담실·쉼터카페 등 갖춰



4일 음성군이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갖고 있다.

음성군은 4일 치매안심센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이날 보건소 부지 내에 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 유관기관단체장과 치매환자

가족 및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495㎡ 규모에 상담실·검진실·쉼터카페·사무실·프로그램실·교육실을 갖췄다.

군은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 13명을 배치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주요 사업은 치매환자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조기검진, 치매가족 지원, 치매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산후출혈을 받지 못한 출산 가정도 출산 후 거주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출산지원금 18억 8000만원, 임신축하금 2억4000만원, 셋째 이상 양육비 7억9200만원 등 총 29억여원의 임신출산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상태다.

윤용권 제천시보건소장은 "제천 지역 모든 소아과와 산부인과와 가맹점 계약을 했다"면서 "임신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어나 이직 등 부득이하게 거주기간(3개월)을 채우지 못해 출

제천시, 출산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제천시는 임신출산지원금을 지역화폐 '모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일 제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 개정안이 임신출산지원금을 지원형 모야 또는 모바일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급 대상자 거주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시의회화 제280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가 발표하면 출산축하금, 임신축하금, 아동양육비를 모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신생아의 부모는 모야 출생 기준 3개월 전부터 제천에 주소를 뒀지만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미만이어도 출생 이후 계속 거주 기간 6개월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어나 이직 등 부득이하게 거주기간(3개월)을 채우지 못해 출

8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엔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개령센터, CJ수원발판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저온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농협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나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부로, CJ우동(중평점), 송림푸드, 청주우동, 예버리지, CJ신선 덕평점,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관(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엘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불어, (주)피아씨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샘플레이스, 청암식품, 리온에스, 주식회사 지리코리아
- 충주푸드푸드뱅크**
동양오츠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마늘보쌈, 설악추어탕, 좋은아침, (주)계이씨푸드, 명동보리밥, 삼육우유사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허 청주대점
- 충주사랑나눔푸드뱅크**
참조우동, 엘리스(분평동), 백설우동, 홈플러스
- 스익스플러스, 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트(개신점), 파리바게트(북대점), 바누아루, 좋은아침(북대점), 두레주르(비하계동점), 단킨도너츠(강서점), 팡스팡스, 웰빙민(지웰시티점), 이초굿베이커리, 금관마트, 동청주우뚜기, 초이스베이커리, 플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바게트(가경대우), 청도너츠, 바로구운빵, 도담영농조합법인 청평점, 명성물류, 머거바식품, 자연술푸드, 푸드글로리, 한울, 비전상사, 태성우수, 도담, 등고개농장, 제훈우동, 정수우동, 오뚜기대리점, 중앙제관(주)**
- 충주드림푸드뱅크**
파리바게트(원평점, 분평우성점, 금천부영점, 건남점, 농협하나로점, 용암효성점, 용암현대점, 신영점, 뉴타운점, 올랑탄타빌점, 올랑점, 개신점, 수암골 영광의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동, 용암서문우동, (주)떡과떡점, (주)민영, 김대현배이커리
- 충주제일푸드뱅크**
충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식식품, 두레주르 올랑점
- 충주제일푸드뱅크**
충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식식품, 두레주르 올랑점
- 충주새영푸드뱅크**
좋은아침오창점, 파리바게트생용점, 두레주르한라점, 두레주르신업단지점, 기문촌날, 그린하우스과자점, 오창출마트, 자갈치 민속떡집, 참떡궁합, 광주기독교서점, 전원푸드락, 낙원떡방
- 충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두레주르 금천정지점, 파리바게트 분평점, 한울 제2농장, 공천떡집,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두레주르 금천뉴타운, 락베오 베이커리, 행복떡집, 유산떡방, 파리바게트 청주제일점, 떡이랑, 두레주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트 청주용안떡집, 영농조합법인 희어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안점, 천영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회(후생사), (주)월드이십일아이치규, 자연연합영농조합법인, 천영, 김가네 생고기장떡집, 파리바게트 청주제일점, 주주떡, 서울우유지점, 시아스우동, 두레주르 분평점, 목행정과, 금관할인마트 올랑점, 청주특남(주), 무외떡방
- 충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신과들F&C, 파리바게트 오창중앙점
- 충평군푸드뱅크**
거림기계, GS슈퍼 중평점, 케이하우스, 금호송불갈비, 서산식품, 좋은아침 올랑점, 파리바게트 내수점, 한구식품, 오뚜기, 단바상사, 단킨도너츠 중평점, 델리온 중평점, 그린우동, GS25 중평대리점
- 괴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괴산잡곡, 신선나도, 신선춘, 온산식품, 제중당약국, 풀무원, 서미숙, 유인숙, 장국희, 락베오베이커리, 두레주르괴산점, 파리바게트괴산점, 매크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출산식품, 주성베이커리
- 옥천군푸드뱅크**
두레주르 엘마트점, 구가네 농이보감, 조마루 감자탕, 목도기든, 행운목, 미가(한정식), 이가화로, 옥천청담타리리클럽, (주)한일우동
- 영동나눔푸드뱅크**
두레주르(김홍욱), (주)베일영육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T. 543-6255)**
서울우유(보은점),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사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선데이푸드, 대상청정원
-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 삼원농장, 영양떡방앗간, 김이박부대리점, 단킨도너츠(금양), (주)이기자연원, (주)후드원, 김점철소미국밥, (주)맑은해물,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두레주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로,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 백암), 삼육우유, 파리바게트(덕산점)
-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파리바게트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토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가왕만두집, 김수향, 델리온(이월점), 에스엔푸드, 자혜식품, 명기떡집, CJ푸드빌, 해마루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복떡집, 이삭식품, 명기떡집, 생거식품, 맑은해물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동식품, 대우우동, 델리온충주교현점, 떡보
- 진천면사랑, 진천스푸드, 음성CJ, 음성CJ(조인), 충주김치나라, 제천푸른촌, 롯데칠성, 일죽청정원, 제천씨알푸드, CJ 진천, 단양(주)정통, 단양두순식품, 서울우유 단양대리점, 파리바게트 단양대리점**
- 단양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사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선데이푸드, 대상청정원

영동군,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본격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 맺어... 총 268억원 투입

2021년 준공 예정... 입주민 포함 지역주민에 복지서비스 제공

영동군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거와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충북도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영동군은 이날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양 기관의 상호협력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영동군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거와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동군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거와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동군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거와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대로부터 문턱 제거, 낮낮이 조절세대, 욕실 미닫이 출입문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하는 등 입주자의 편의를 꼼꼼히 살핀다.

영동군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거와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동군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거와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동군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거와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동군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거와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동군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거와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동군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거와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괴산군, 지역돌봄협의체 위원 5명 위촉

괴산군은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괴산군 지역돌봄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괴산군은 23일 괴산군 지역돌봄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괴산군은 23일 괴산군 지역돌봄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괴산군은 23일 괴산군 지역돌봄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괴산군은 23일 괴산군 지역돌봄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괴산군은 23일 괴산군 지역돌봄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동군, 제1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대회 '성료'

5일 영동체육관에서 '도전! 사회복지골든벨'과 함께 진행

사회복지사·시설종사자 등 220여명 참석... 유공자 표창도

영동군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5일 영동체육관에서 '제12회 영동군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도전! 사회복지골든벨'을 개최했다.

영동군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5일 영동체육관에서 '제12회 영동군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도전! 사회복지골든벨'을 개최했다.

영동군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5일 영동체육관에서 '제12회 영동군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도전! 사회복지골든벨'을 개최했다.

영동군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5일 영동체육관에서 '제12회 영동군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도전! 사회복지골든벨'을 개최했다.

영동군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5일 영동체육관에서 '제12회 영동군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도전! 사회복지골든벨'을 개최했다.

영동군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5일 영동체육관에서 '제12회 영동군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도전! 사회복지골든벨'을 개최했다.

영동군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5일 영동체육관에서 '제12회 영동군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도전! 사회복지골든벨'을 개최했다.

영동군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5일 영동체육관에서 '제12회 영동군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도전! 사회복지골든벨'을 개최했다.

영동군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5일 영동체육관에서 '제12회 영동군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도전! 사회복지골든벨'을 개최했다.

영동군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5일 영동체육관에서 '제12회 영동군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도전! 사회복지골든벨'을 개최했다.



영동군은 5일 '제12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영동체육관에서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해 5개 기관 협력

증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5개 기관이 협력기로 했다.



증평군은 5일 증평군의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증평소방서 4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증평군은 5일 증평군의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증평소방서 4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증평군은 5일 증평군의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증평소방서 4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증평군은 5일 증평군의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증평소방서 4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증평군은 5일 증평군의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증평소방서 4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증평군은 5일 증평군의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증평소방서 4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증평군은 5일 증평군의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증평소방서 4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증평군은 5일 증평군의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증평소방서 4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증평군은 5일 증평군의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증평소방서 4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증평군은 5일 증평군의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증평소방서 4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증평군은 5일 증평군의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증평소방서 4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증평군은 5일 증평군의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증평소방서 4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증평군은 5일 증평군의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증평소방서 4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증평군은 5일 증평군의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증평소방서 4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증평군은 5일 증평군의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증평소방서 4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증평군은 5일 증평군의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증평소방서 4개 기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보은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

회남·내북면에 배치...총 11대 맞춤형 복지 실현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 등 9개 지역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전달했으며, 이번에 전달된 2대의 차량을 포함해 총 11대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이 운영돼 보은군 곳곳을 누빌 수 있게 됐다.

보은군 등 9개 지역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전달했으며, 이번에 전달된 2대의 차량을 포함해 총 11대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이 운영돼 보은군 곳곳을 누빌 수 있게 됐다.

보은군 등 9개 지역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전달했으며, 이번에 전달된 2대의 차량을 포함해 총 11대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이 운영돼 보은군 곳곳을 누빌 수 있게 됐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보은군은 18일 군청 광장에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옥천군, 각종 노인복지시책 담은 알기 쉬운 안내 책자 발간

'노인복지 사용설명서' 만들어 기관·단체에 배부

옥천군은 고령화 사회에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100세 시대 꼭 알고 싶은 노인복지 사용설명서'를 제작해 각 읍·면사무소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배부했다.

옥천군은 고령화 사회에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100세 시대 꼭 알고 싶은 노인복지 사용설명서'를 제작해 각 읍·면사무소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배부했다.



'100세 시대 꼭 알고 싶은 노인복지 사용설명서' 책자 표지

옥천군은 고령화 사회에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100세 시대 꼭 알고 싶은 노인복지 사용설명서'를 제작해 각 읍·면사무소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배부했다.

옥천군은 고령화 사회에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100세 시대 꼭 알고 싶은 노인복지 사용설명서'를 제작해 각 읍·면사무소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배부했다.

옥천군은 고령화 사회에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100세 시대 꼭 알고 싶은 노인복지 사용설명서'를 제작해 각 읍·면사무소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배부했다.

옥천군은 고령화 사회에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100세 시대 꼭 알고 싶은 노인복지 사용설명서'를 제작해 각 읍·면사무소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배부했다.

옥천군은 고령화 사회에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100세 시대 꼭 알고 싶은 노인복지 사용설명서'를 제작해 각 읍·면사무소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배부했다.

옥천군은 고령화 사회에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100세 시대 꼭 알고 싶은 노인복지 사용설명서'를 제작해 각 읍·면사무소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배부했다.

옥천군은 고령화 사회에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100세 시대 꼭 알고 싶은 노인복지 사용설명서'를 제작해 각 읍·면사무소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배부했다.

옥천군은 고령화 사회에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100세 시대 꼭 알고 싶은 노인복지 사용설명서'를 제작해 각 읍·면사무소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배부했다.

옥천군은 고령화 사회에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100세 시대 꼭 알고 싶은 노인복지 사용설명서'를 제작해 각 읍·면사무소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배부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내년 복지부 예산 '82조8000억원'

(올해보다 14.2%↑)

사회안전망·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주력 편성 건보, 역대 최대 '8조9627억원'... 취약계층 지원도 ↑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72조5148억)보다 14.2% 증가한 8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 513조5000억원의 16.1%에 해당하며, 올해 예산 대비 증가 규모(10조3000억원)는 정부 전체 증가분(43조9000억원)의 23.5%에 달한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4.7%(8조9413억원), 보건분야 예산은 11.8%(1조3642억원) 증가했다. 복지부는 증액된 예산은 포용 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 방향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 투자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에 주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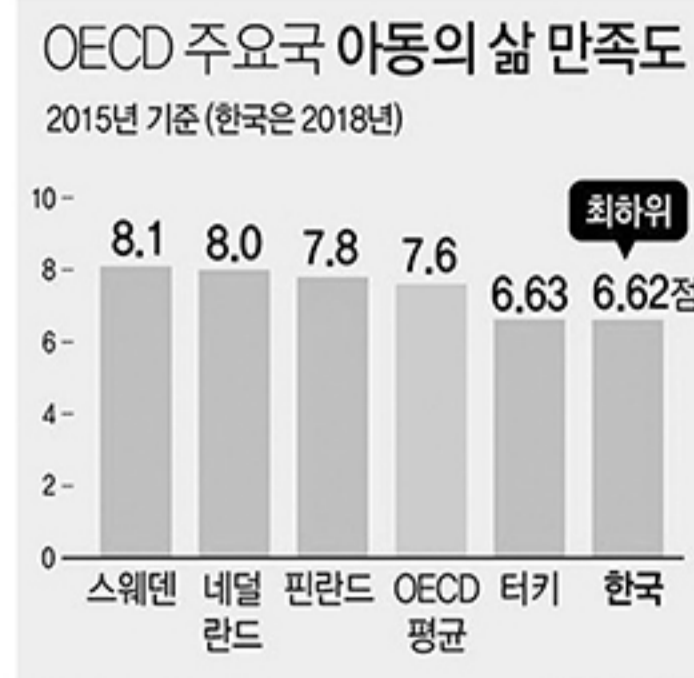
성했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 급여 예산은 5762억원(15.3%) 늘어난 4조3379억원으로 책정됐다. 25~64세까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30%의 근로소득 공제도 적용한다. 북한 이탈 주민 모자 사망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예산에 780억원(190.7%)이 증액됐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4개 광역 지자체에도 20억원이 배정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6개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에 81억원(84%), 사회서비스원 7개 추가 설립에 61억원(102.2%)

이 증액됐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9만명, 서비스 제공시간을 월평균 127시간으로 확대하는데 관련 예산이 2603억원(25.6%) 증액됐다. 발달장애인 지원은 428억원(100.1%), 장애인 일자리 207억원(17.1%)이 늘었다. 아동복지시설을 최소화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예산은 119억원(120.2%),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예산은 64억원(51%) 증액됐다. 이밖에 만 15~39세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했다. 청년저축계좌는 10만원만 저축하면 30만원을 매칭해 3년간 1440만원을 형성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13.8%) 증

액된 8조9627억원으로 편성됐다. 정신건강 분야 예산은 738억원(39%)이 증액됐다. 대표적으로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 사업에 974억원(33.7% 증가), 마약치료와 정신건강 증진 사업 관리에 52억원(462.5% 증가)이 늘었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은 130억원(11.4%) 늘리고,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 1개소 설치 예산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닥터헬기를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꾸고 24시간 운영하는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도 13억원(6.9%) 증액됐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은 1분위 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투자, 정신건강 분야 지원에 집중해 편성됐다"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 수준 여전히 '바닥'

소폭 상승 불구 OECD 기준 '최하위'... 정책적 대안 절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평균 행복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의뢰해 조사한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9~17세 아동·청소년의 행복 정도를 조사한 결과,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OECD 주요국 아동의 삶 만족도 2015년 기준(한국은 2018년)이다. 스웨덴 8.1, 네덜란드 8.0, 핀란드 7.8, OECD 평균 7.6, 터키 6.63, 한국 6.62점이다. 한국은 '최하위'로 표시되어 있다. 연립뉴스, 출처 연립뉴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아동복지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아동 종합 실태조사를 한다. 지금까지 2008년과 2013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2018년 조사에서 9~17세 아동과 중고등 학생 2219명을 대상으로 10점 만점(최하 0점~최고 10점) 척도로 개인의 행복도 점수를 측정해 보니, 평균 점수는 6.57점으로 2013년 조사 때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9~11세는 6.80점, 12~17세는 6.45점이었다. 아동·청소년의 행복도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낮았고, 가구 형태별로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양부모 가정보다 낮게 나타났다. 건강·성취·관계·안전·동네(지역)·생활 수준·미래 안정성 등 삶에 중요한 7개 영역의 만

건보공단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해드려요"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전국 89개소 등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부터 어르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 2400원, 5등급 98만800원) 내에서 요양서비스 목을 설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그간 82%의 어르신이 1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내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해야하고, 서로 다른 기관들을 찾아 따로 예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목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목을 결정하여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하므로 건강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 건강상태(빈혈, 탈수 가능성)를 고려한 식사 준비, 복용약 부작용 등 돌봄 방법을 교육·지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또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생활·가정환경' 등을 서로 공유하며 어르신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팀 단위로 진행하게 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내달부터 전국 보건소·지정 의료기관... 접종대상 총 1381만명

올해부터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10월부터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접종대상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2007년 1월 1일~2019년 8월 31일 출생) 549만명, 임신부 약 32만명, 65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800만명 등 전국민의 27%인 1381만명 가량이다. 특히 올해는 태아와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이 임신부까지 확대됐다. 임신 중에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하면 태반을 통해 태아와 영아까지 항체가 형성돼 면역력이 높아진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사회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

사회(직선제) 등 관련 학회, 의사단체 등과 함께 안전한 임신부 예방접종을 위해 협업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접종 기간은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접종 후 항체생성과 지속기간(접종 2주부터 생기기 시작해 평균 6개월 정도 유지) 등을 고려해 대상자별로 조금씩 다르다. 생애 첫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4주 간격 2회 접종)하는 어린이는 이달 17일부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유행 기간의 면역력 유지를 고려해 내달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한 임신부는 10월 15일부터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의 경우 만 7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만 65세 이상은 10월 22일부터 차례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

료기관(총 2만426개소)과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또 스마트폰 앱(예방접종도우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접종대상자는 접종 기간에 맞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단골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받으면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백신은 지난해 대비 120만 도즈(9%)가 증가한 1407만 도즈를 공급. 원활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일시적 수급 애로에 대비해 추가로 9만 도즈를 확보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에 대한 궁금증은 보건소와 보건복지콜센터(☎1339, ☎129)로 문의하면 된다.

의료복지서비스 이제 지역에서 받는다

'커뮤니티케어' 16개 지자체서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추가된 8개 지자체에는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관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모두 노인 선도사업 지역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지난 6월부터 실시 중인 1차 선도사업 지자체 8곳은 광주 서구·부천시·천안시·전주

시·김해시(노인형), 대구 남구·제주시(장애인형), 화성시(정신질환자형) 등이다. 임호근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2차 선도사업 지자체는 고령화 비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농촌 지역 지자체가 들어 있어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1차 선도사업 지자체 8곳은 광주 서구·부천시·천안시·전주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 2. 봉사단 위촉 기준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입문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 4.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중복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 5.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북도, 사회복지종사자의 행복 수준은?

청주복지재단, 경계선 지능 의심 아동 연구 보고회

■ 사회복지종사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여성보다 남성 ↑ · 연령 · 직급 높을수록 행복수준 높아

충북 사회복지종사자 행복(happiness)의 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6.94점으로 나타났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 이하 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30일 간 2019년 사회복지종사자의 행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오차(SE: Sampling Error) 95% 신뢰수준에서 ± 6.93%)

2019년 조사결과 2016년 충북 사회복지종사자의 행복에 관한 연구의 행복수준 7.4점(10점 만점)보다 0.46점 낮게 나타났다. 또 여성보다 남성의 행복수준이 더 높으며, 연령과 직급이 높아질수록 행복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이것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직장 내 직급이 올라가고 권한이 확장되는 일반적인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행복 구성요소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은 직장생활의 가치(value) 7.88점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은 현재 직장생활이 즐겁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직장생활에 대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종사자의 행복은 직장생활 내에서의 요인도 영향을 미치나 직장 외 가정, 사회생활 등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선형연구를 토대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재구성하여, 직장생활 요인(work)과 일상생활 요인(life)으로 구분했다. 직장생활 요인으로는 직무, 직장 내 관계, 심리상태, 일상생활요인으로는 경제(돈), 직장 외 관계, 여가로 구분하여 15개와 행복의 관계를 검증하고 영향력을 분석하여 강한 유의관계(표준화된 베타계수 0.3이상)를 가지고

있는 6개 요인을 선정 하였다.

행복(happiness)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1순위 긍정감성(positive affect)으로, 지난 2주간 직장생활에서 대체로 많이 웃었는지, 대체로 즐거웠는지를 묻는 긍정 감성(positive affect)은 15개 요인을 모두 종합해볼 때, 사회복지종사자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행복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 감성(positive affect), 업무 의미감, 동료지원, 조직 및 상사지원, 부정 감성(negative affect), 가족관계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에서의 영향요인 수준을 비교하면 직무관련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무 관련 요인 중 업무 자신감보다는 업무 의미감이 사회복지종사자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의미감은 전체 15개 영향요인 중 두 번째로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관계측면에서는 동료지원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조직 및 상

사지원도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동료지원이 행복에는 더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했다.

일상 생활요인 중에서 가족관계는 사회복지종사자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 평균은 7.76 점(10점 만점),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행복 수준이 상승되며 직장생활 외에 가정 생활에서의 관계도 사회복지종사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파급이론이 입증되었다.

경제적(금전) 요인은 행복을 위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형성하기도 하고, 적극적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사회복지종사자의 행복(happiness)도 증가하기도 하였으며, 수면시간은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직장생활에서의 영향요인(work)'이 '일상생활에서의 영향요인(life)'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행복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실태·지원방안 결과보고회 전담인력·예산 확대 등 제시

청주복지재단(이사장 한범덕)은 6일 '청주시 경계선 지능 의심 아동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모색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공식적으로 장애인격을 받지 않는 않았지만 인지 능력이 평균 이하인 경계선 지능 아동이 복지 사각 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진행된 이 연구는 청주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을 중심으로 경계선 지능 의심·진단 아동을 파악해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됐다.

아동시설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구 보고회는 서재욱 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의 연구결과 보고에 이어 윤상용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청주복지재단은 6일 '청주시 경계선 지능 의심아동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모색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를 좌장으로 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혜영 청주시 아동보육과 주무관, 이현주 청주시의회 의원이 지정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서 연구위원은 "청주시에도 경계선 지능 증상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식 부족 등으로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심리검사 지원 강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양육자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해당 아동 대상 방문형 바우처 사업, 전담인력 및 예산 확대, 아동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위한 취업기회 확대, 충북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별도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비장애인과 동과의 효과적인 통합교육 등을 통해 차별없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했다.

바른 성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아름이의 하루'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20일까지 22회 공연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일 옥천문화예술회관 공연을 시작으로 한달 간 충북내 어린이집 만3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뮤지컬 공연을 진행했다.

2006년부터 매년 줄거리를 달리하여 무료로 진행되는 성교육 뮤지컬은 어린이집 재원 유아의 연령과 발달을 고려한 올바른 성인식과 성폭력예방을 중심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노래와 율동 등 질 높은 공연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공연되는 뮤지컬 '아름이의 하루'는 성범죄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아름이가 마음속에 존재하는 용감이, 씩씩이, 생각이의 도움 받아 위험한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며, 유아에게 자존감과 용기를 일깨워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공연은 충북전역에서 순회 공연으로 진행되어 문화혜택 소외지역 어린이집의 유아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성범죄 예방법등을 알려주는 교육적 효과가 뛰어나 큰 기대를 모으게 하는 공연이다.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성교육 뮤지컬은 3일 옥천공연을 시작으로 4일 음성, 5일 증평, 6일 충주, 10일 진천, 18일 제천, 19일과 20일 이틀의 청주공연을 끝으로 하루 3차례, 총 22회 공연으로 8,000여명의 유아에게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청주외고 나눔실천학교 수료식

청주외국어고 학생회 21명 자치활동 일환으로 진행

2주간의 교내 캠페인 · 정기후원 등 직접 기획 실행



청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초록우산 나눔실천학교 수료식을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순으로 이뤄졌다.

청주외고 초록우산 나눔실천학교는 지난 8월 26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태어나마자 차가운 거리에서 발견되는 무연고 아동의 어려움을 알리는 교내 캠페인을 직접 기획해서 2주간 진행했으며 21명의 학생들은 정기후원에도 참여하였다.

청주외고 나눔실천학교 대표 전여원(3학년) 학생은 "학생들만의 방식으로 무연고 아동문제를 위해 지원방안을 찾을 수 있어 뜻 깊고 보람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하면서 "뿌듯함과 감동이 큰 만큼 앞으로도 무연고 아동지원에 대한 후원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료식은 청주외고 학생들의 무연고 아동지원 캠페인에 대한 결과 보고, 우수 활동자 표창

보호아동 · 양육자 가족기능 회복 MOU

4일 청주시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가정위탁지원센터 협약

청주시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미영)는 4일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김영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가정 내 · 외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위탁가정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과 양육자의 정신건강증진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업무협약을 통해 보

호아동과 양육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연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보호아동과 양육자의 건강한 역할을 위한 자원 연계 등 양 기관이 협력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친가정의 해체 및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정서적 ·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그



청주시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아동과 양육자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했다.

가족들은 청주시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043-215-6868)로 문의하면 무료로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전국사회복지시설평가서 '우수 기관' 선정

정은경 관장 "행복한 노후 위해 선구자적 역할 할 것"

사단법인 충청노인복지개발회(대표 남기민 · 조명희)가 운영하는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18년 전국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이번 평가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 시설 등 전국 80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가경노인복지관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티브도 받았다.

정은경 관장은 "청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어르신들의 협조로 최우수 노인복지관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청주시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동행 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사단법인 충청노인복지개발회(대표 남기민 · 조명희)가 운영하는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이 2018년 전국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www.043w.or.kr

충북복지넷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위한 사회복지계 대응 방안

한국, 1960~80년대 산업혁명 기간 동안 ‘장시간 노동 불가피’ 인식 팽배 노동생산성 OECD 평균 61.9% · 삶의 질 지수 36개국 중 33개국으로 부진

다 아시다시피 철강왕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 1835. 11. 25 ~ 1919. 8. 11)이다. 장시간 근로를 논하는데 왜 앤드류 카네기를 이야기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을 것이다.

앤드류 카네기가 운영하던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공장에서 1892년 기계 과열과 장시간 노동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당시 사장이었던 헨리 프릭을 저격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기폭제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도 1892년도에 말이다.

■ OECD 내 한국의 노동환경 실태

OECD 평균근로 시간보다 많고 생산성 떨어져 한국의 현실을 보면 2017년 근로시간은 연간 2024시간을 보이고 있다. OECD 근로시간 평균 2013년 1770시간, 2014년 1763시간, 2015년 1766시간(stats.oecd.org, 2016)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을 1960~1980년대 전반까지 압축적인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들은 물론 정부, 학자, 심지어 노동운동하는 사람들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노동생산성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61.9%로 OECD 30개국 중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시간당 GDP를 보더라도 2015년도 우리나라는 31.77달러인 반면에 OECD는 46.53달러이다.

■ 환경이 좋아야 행복도 따른다

더 이상 장시간 근로가 생산성과 GDP에 상당히 긍정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일과 가정(삶)의 지수를 살펴보면 2015년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조사에서 36개국 중 33위를 차지했으며, 노동생산성 또한 OECD 평균 40.5달러인 반면에 한국은 29.9달러로 34개국 중 25위에 머물러 있다.

■ 여성의 근무 환경에 따른 출생률 변화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사회자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행하게도 28개국 중 28위이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2016년도에 190만 6000명이었으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사유가 91%를 차지하였다.

출산율을 보면 17년도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은 1.05명 미만이다. 직장인의 65%가 번아웃(burnout)을 경험했다고 한다.

■ 정부적 차원의 개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시간 근로 개선과 관련하여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제도의 개선이다. 제도의 개선 중 가장 큰 이슈는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계적 축소하는 것과 노동시간의 유연화이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감축강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일하는 방식과 근로문화 개선의 범국민 캠페인 추진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노사가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와 달리 변경해서 부여할 수 없게 되었다.

■ 실질적 개선 방안 적용의 난제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조건 개선 병행돼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장시간 근로의 주된 원인으로 돌봄의 증가와 상시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관계로 연중 무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대 근무가 필수적이며 교대 근무자 1인의 공백은 다른 근무자들의 연장근로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높은 근무강도와 장시간 근로로 인해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인력난과 한정된 지원제도로 인한 상시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인력난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숙련된 인력의 장기근속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근로조건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 왜 증가했는가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2017년도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중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경우 주 평균 5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비율이 무려 28.2%에 달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 중 가장 높은 근무시간을 보이고 있다.

근기법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통상임금의 50% 가산되어 지급되는 경우는 2017년도에 비해 2016년이 매우 큰 폭으로 하락되었고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 지급되는 비율이 급증하였다.

즉 연장근로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장시간 근로가 상시화되고 있는 현상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 지속적 서비스 품질 · 인력 유지해야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인건비 재원의 비중이 높다. 장시간 근로가 문제되는 생활시설의 90%가 넘는 국고보조금 비율은 근로시간 단축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적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직경험과 이직의도에 대한 응답을 보면 평균 3회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직 의도 또한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및 인력의 유지도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특성 상 인력충원이 필요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은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근로시간 개선방안의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표 1) 근무제도 설계

교대제 유형	개선방향	개선안	내용	월/시간	월/연장	월/단축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단축	순환휴게 근무제	실질적 휴게시간 확보	203	40	-25
	근로일수 단축	아간순환 근무제	아간근로일수를 감소하여 전체적 근로시간 단축	183	21	-45
3조3교대	근로시간 분산	주6일제	근로일수를 증가하고 1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연장근로의 집중화 해소	213	22	-15
4조3교대	투입효율성 증대	담당 인원 확대 근무제	서비스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	160	0	-68

근무제도 교대 설계 구조, 기존의 교대업무는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최근 개선안에 따르면 근로일수 단축 · 근로시간 분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단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 모집이 필요하다. 인력 충원이 필요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은 현재 제도 하에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인력 기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근로시간 개선방안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근기법 준수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 단축과 1주 연장근로시간의 분산방안으로 구분된다.

첫째, 총 근로시간 단축 방안의 일환으로 휴게시간 확보, 근로일수 단축, 투입효율성 증대로 1인당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계 대다수를 차지하는 3조 2교대를 4조 3교대제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연장근로시간 분산은 근로시간 단축효과보다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근무 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24시간 집중적 서비스가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장에 적합한 제도로 고른 근로시간 분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얼마나 영향 미칠까

연차휴가 발생 · 교대제 유형별 근로시간 단축방안 · 실질적 휴게시간 부여 난제... 제도 설계로 극복해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도 고민 필요 상기의 방식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사항은 휴게시간과 연차휴가 발생, 교대제 유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다. 근로시간 단축 방안 중 현실적으로 휴게시간 부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지배적이다.

휴게시간의 경우 실질적 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휴게시간 부여 방식의 변경이 없는 한 법정 최소한의 휴게가 부여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3조2교대의 경우 3개의 교대제를 두어 근무형태를 3조로 나누어 1일 기준으로 2개조는 근무하고 1개조는 휴무하는 형태로 근로시간 한계 위반이 존재하나 근무 제도 설계로 극복이 가능한 수준이다.

■ 대체인력 없는 휴가 사용 제한적

우선 3조 3교대의 경우 1일 근로를 3근무조로 나누어 각 교대조별로 근무조를 적절히 배합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며 대체인력 없이 휴가 사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 1인 연차휴가 당 1인 연장근로 발생 우려

두 번째는 24시간 연중 무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교대근무자 1인의 연차휴가는 다른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발생 시킨다는 것이다. 연차사용으로 인해 3조2교대의 경우 평균적으로 1인당 월 10 ~ 12.5시간, 4조3교대의 경우 1인당 월 7 ~ 1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원기준에 따른 근로시간을 설계할 경우 근기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연차휴가 대체근무로 인한 연장근로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만 순환적 연장근로로 인한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A연차-B대체근무-C가 B의 대체휴무에 대한 연장근로 형태로 운영할 경우 연장근로의 누적으로 결국 법 위반의 문제 발생 소지 발생).

세 번째 교대제 유형에 따른 방안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 연장수당 감소

다음으로 주 52시간 준수에 따른 애로사항은 연장수당 감소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수당 감소를 보전해 줘야 하는 법적무는 없지만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본다. 물론, 임금보전을 하고 싶어도 재원의 한계로 할 수 없는 상황 또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표 2> 임금보전방안

항목	내용	비고	적용 가능성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감소에 따른 임금감소분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여 보전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지만 자부담능력이 수반되는 기관에서만 가능	○
보전수당	사급인상, 통상임금 범위조정 등 임금인상을 통해 보전	축소되는 근로시간만큼 통상임금 인상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시킴으로써 연장근로수당이 상향 조정되지만 근로시간 설계에 따라 시급의 차이 발생	○
가산율 조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의 가산율을 법정기준인 50% 보다 높게 조정하여 지급하는 방안	위탁기관의 기준을 초과하는 가산율 조정 시 자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점	X
인센티브	사업성과 목표를 정하고 달성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비영리사업으로 성과목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재원확보가 어려움	X
유급시간 조정	실 근로시간외 교육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유급화하여 감소되는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	근로시간 단축효과가 큰 교대제에서는 휴게시간의 일부를 유급화하는 방안 고려	○
기타	복리후생 확대 등 비금전적 보상	지체 재원 확보가 수반되어야 함	X

임금보전방안 세부항목, 제도 설계 시 100% 임금보전을 기준, 최소 보전율(Minimum Conservation Rate)을 정해 두어야 더 합리적인 책정이 가능하다. 유형별 임금감소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축 방안 선택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들과 협의하고,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각 방안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적용 가능성이 있는 건 절반 정도이다.

임금 최소보전을 기준 필요 · 제도 도입 절차도... 교대제별 임금감소분 차이 현저, 근로자와 상의해야

그렇다면 임금보전은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 보전 비율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지만 명확한 정답은 없다. 그러나 제도 설계 시 100% 임금보전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보전율(Minimum Conservation Rate)을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대제 유형에 따라 임금감소분의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단축방안의 선택에 있어 반드시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사업장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제도 도입 절차가 필요하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안을 수립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되는 임금을 보전하는 방법은 사업장의 자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협의 · 진행해야 한다. 앞서 사회복지사업의 애로사항, 법정 근로시간 준수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한정된 범위와 실행적인 측면만 고려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근로시간 준수 및 휴게시간 부여의 어려움, 임금보전의 논리가 아닌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종사자에게 무엇을 더 배려할 수 있는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 복지광장 ||



이규창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요즘 '오늘도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평소 쓰던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 보다 차원이 높고, 품격이 있는 인사말이라 생각한다. 우리들 삶의 기대가 행복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트란 상태이다. 늘 이런 상태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러나 이 행복의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좋은 일이 생기고, 근심이 사라지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든지 하면 잠깐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고 길어지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런 행복을 만들어 가는 일을 복지인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개발해법네트워크(SDSN)'는 2012년부터 세계 행복보고서를 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행복지수를 산출하여 국가별 행복도가 발표된다. 행복지수 산출 항목은 소득,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선택의 자유, 관용, 신뢰 등 6개 핵심 변수다. 2018년도 행복지수 1위는 핀란드다. 상위 10개국 가운데 8개국이 북유럽국가라고 한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고 세율 고복지로 의료, 교육, 일자리, 노후생활 등 삶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탄탄한 사회 안전망이 있다. 그래서 국가 신뢰도가 높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사활을 건 생존경쟁이 완화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유대감이 커서 어려움을 당할 때 복구 및 대처능력이 뛰어나고 한다.

복지와 행복

1인당 GDP가 높을수록 행복도도 높아지는 경향도 있지만, 북 유럽 국가들 사람들과의 친분관계에서 오는 일상생활에서 오는 행복감이 더 크다고 한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특히 SNS로 자랑 질 하는 것을 질색으로 여기는데,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깨끗한 환경, 충분한 휴식, 안전한 일자리 등도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다. 국가는 국민들이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평범한 삶을 살도록 돕고, 국민들은 국가를 신뢰하여 삶에 대한 염려가 없다.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다. 학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연구 발표한 문헌도 접해보지 못했다. 지금 우리사회의 어려운 속세이기도 하다. '복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서 편안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복지는 행복과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복지는 부족한 물질만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고 마음도 기쁘게 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만족

하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물질로는 이 만족을 채우기 어렵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는 비전을 '나눔과 배려로 진천을 행복하게'로 정하고 활동하고 있다. 연 2회씩 발간하는 소식지의 제목도 '나눔과 배려다. 나누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배려하는 일에 힘써, 기쁨을 느끼고 스스로 만족해서 행복감을 더하고 행복한 시간이 많아지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주민복지대학은 복지정책을 떠나서 '사회복지와 행복' 또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 등을 주제로 한다. 함께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실천 참여하도록 강의한다. 주는 일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의 착한 감성을 자극하는, 그래서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이 되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다. 국민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사회복지논리가 필요한 때다.

|| 복지포럼 ||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지는 빈곤 등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수단의 일환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 중반 산업혁명 발상지인 영국이 미국, 독일 등 신흥공업국과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도시지역에서 빈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부스(Booth)와 라운트리(Rowntree)의 빈곤조사, 자원봉사자연합체인 자선조직협회(COS) 그리고 지역사회운동인 토티비홀(Toynbee Hall)은 민간 차원 최초의 사회복지활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발달된 영국은 민간이 복지 분야를 선도한 반면, 정치적 통일로 강력한 중앙권력이 형성된 독일은 비스마르크 재상이 사회보합이라는 혁신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전통을 세웠다. 독일에서 시작된 사회보험제도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영국 처칠 수상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최초의 복지국가 청사진인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게 했다.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고 세계경제 호황이 장기화 지속되면서, 서구 선진국들은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려는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반적인 복지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복지재정 팽창으로 '큰 정부'와 이에 따른 비효율이 새로운 도전과제로 등장했다. 복지국가와 큰 정부에 대한 반작용으로 1980년대부터 이른바 '신(新)자유주의'가 부상하면서 복지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블레어(Blair) 노동당 정부는 총리실에 '제3섹터청'을 신설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금융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혁신적 민간복지활동을 지원하였다. 2010년 집권한 보수당 정권에서

도, 비록 명칭을 '제3섹터'에서 '시민사회'로 바꿨지만, 사회금융 시장을 통한 민간복지활동 활성화 노력을 지속되었다. 정부 중심의 '복지국가'를 시민사회와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복지사회'로 개편하려는 노력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 호주 등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물론 독일, 프랑스 등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와 스웨덴, 덴마크 등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의 사회혁신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사회혁신의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금융의 활성화는 물론 IT 등 기술혁신을 복지분야에 접목시키려는 노력 역시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한국, 대만이 주축이 된 '동아시아형'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제도에 기초하는 '보수주의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정부 못지않게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형'을 가미한 '혼합형'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형' 복지국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발전이 복지발전을 선도했다는 점인데, 불균형 발전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경제발전으로 인해 복지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용이하게 했다는 장점이 있다. 복지국가의 성격은 인위적 정책 설계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정치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빚어낸 산물이다. 따라서 어떤 나라든 정부가 복지국가를 그리는데 있어서도 기존 '동아시아형'에 새로운 요소를 가미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형'은 복지와 경제가 상호보완적이고, 정부와 민간 부문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역할 분담을 하기 때문에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하겠다.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훌륭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분담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는 복지국가의 본보기인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복지 분야에서도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복지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사회혁신을 통해 복지사업의 사회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만 강조되는 '복지국가'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치(Co-governance)에 기반한 '복지사회' 개념로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



이순남
진천군학대피해 아동쉼터
다락방 시설장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다소 낯설기도 하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짧은 지면을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께 알리고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의 도입 배경은 정신적 장애나 치매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약 등 일상생활의 법적 행위에 불이익을 받도록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년후견인 활동 사회복지사들 참여 절실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본인의 불이익이나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필자는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위촉되어 성년후견인 활동과 후견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과정은 2013년 6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320시간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로 성년후견인 후보자 추천이 의뢰되었고,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지사를 신청받아 추천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서류·면접 심사 후 후보자로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성년후견인 제도에 의하여 보호받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후견감독보조 활동입니다. 피성년후견인 가정을 직접 방문한 후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후견감독신청조사보고서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후견감독신청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현재 미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과의 관계, 사회복지서비스 및 일상생활 정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피

미성년후견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면담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꼼꼼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공공성년후견인 활동으로 90대 무연고 치매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신청관리 및 재산관리의 대리권을 행사하며 피성년후견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할머니는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며 치매가 점점 심각해졌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도 원만하게 해결할 능력이 없어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생활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우편물을 무단으로 수거하여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의 집도 찾아가지 못하는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어르신들을 노인요양원에 모시면서 경로당 어르신들께 조촐한 이별 파티를 열어드렸고, 이웃 어르신들은 요양원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생활 공간을 확인하는 훈훈함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다행히 1년 후 친자녀를 찾게 되어 성년후견인 사무는 종료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분들에게, 사회복지 전문가인 우리 사회복지사는 당사자의 인권옹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후견인

으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공익적 목적 실현을 위한 역할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에 준거하여 우리들의 책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성년후견인' 제도는 성년후견인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국선변호인' 제도와 유사하게 법원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국선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공성년후견인'은 사회복지사, 법무사, 변호사 중 지방법원에서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위촉된 전문후견인 중 피후견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임합니다. 성년후견 사무가 재산관리 영역이 중요한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며, 신상보호 영역이 중요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때로는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모두가 필요한 경우는 두 명의 전문가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올 해 9월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받아 신규 위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 중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합니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로 법률호닥터 사업 안내

법률호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원만한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wma7259@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호닥터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라혜영 변호사

Q. 지난 9월 초 태풍 링링이 불어와 저희집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파트 1층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유리창 파편에 맞아 다리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손해와 행인의 상처에 대하여 제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태풍피해와 공작물책임

A. 민법 제758조 제1항에는 공작물 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그가 손해를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되고, 이때에는 2차적으로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태풍으로 인해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서 위 사례와 같이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행인이 다친 경우 유리창의 소유자가 공작물책임이라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이 동반되는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에서 태풍은 예상이 불가한 천재지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유리창의 소유자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러한 예방조치를 취하였다 하여도 유리창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지정보 제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7회 전국 초·중·고등 학생 사랑의예배 나눔공모전

- 공모기간 : 2019년 9월 2일(월) ~ 10월 18일(금)
■ 공모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생
■ 공모주제 : -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 직접 체험한 혹은 실천한 나눔 경험 이야기
- 학교(일상)생활 속 다양한 나눔 실천 방법 소개
■ 공모부문 : - 슬로건(표어), 글쓰기(문예), 만화(웹툰), 창작그림
■ 공모방법 : - 학생 응모(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나눔교육 지도교사상 추천서식 각1부(추천대상자 명부, 공적조서, 동의서)
■ 시상내역 : - 개인 부문, 단체상 부문, 지도교사상 부문
■ 결과발표 : 2019년 12월 2일
■ 문의사항 : 운영사무국(☎ 02-6953-1310) / nanum@contestweb.net
■ 참고 : http://www.나눔공모전.com

[희망나눔 주주연대] 희망나눔 의료/생활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 저소득층으로 환아가 있는 사회적·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정(소득수준의 경우 차상위계층 포함)
- 청소년 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본 기관 홈페이지 신청접수(홈페이지 상단 '희망나눔' - '사업제보 및 후원신청'을 통한 제출)
■ 제출서류 : https://www.bokji.net 홈페이지 참조
■ 심사 및 선정절차 : 추천 및 신청(접수 및 심의(후원 및 사례관리(돌봄)
■ 문의 : 희망나눔 주주연대 / ☎ 02-3789-2555 / 이메일 : hope@hopeon.or.kr
■ 참고 : https://www.bokji.net

[KT&G복지재단] 2019년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대상 : 전국 사회복지관
■ 지원대상 : 화상, 고도비만, 기형 등 의형적인 신체질환으로 사회생활을 기피하게 된 대상자
■ 지원내용 : 외형적 신체질환 및 정신건강 치료, 사회복지활동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안내문 참조)
■ 신청기간 : 수시 진행(매월 대상자 모집 및 심사 진행 예정)
■ 기타 : - 붙임문서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aswc.or.kr) 복지정보-사회복지소식에서 다운로드
■ 문의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 담당(전화: 070-7017-6623)
■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후원처 : 신한금융그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공모주제 :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사업)
■ 접수기간 : 2019년 9월 25일(수)~10월 8일(화) 18시까지
■ 응모자격 :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개인,기관)
- 개인 또는 팀구성(3인 이내) 참가 가능
-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단체 및 법인등의*로 참가 가능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모두 참가 가능
■ 제출방법 : 공단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하여 이메일 제출(psdcap@kead.or.kr)
■ 시상내역 : 대상 1건(300만원)/우수상 2건(100만원)/장려상 3건(50만원)
■ 문의 : ☎ 031-728-7268
■ 참고 : www.kead.or.kr

[KT&G복지재단] 2019년 '상상편의의료복지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만 18세 이하의 저소득(차상위,수급,일반저소득) 아동·청소년
■ 지원내용 : 치료비·수술비·재활치료비·보장구 구입 등 의료에 관해 병명 제한 없음. (단, 간병비 제외)
■ 지원금액 : KT&G 임직원 모금을 통해 최소보장지원금 30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
■ 선정발표 :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 신청방법 :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
- 온라인 사연신청 : 재단홈페이지(www.ktngwelfare.org) > 사업안내 > 인터넷복지사업 > 상상편의의료복지지원사업 > 사업안내 탭 페이지 하단의 [의료복지지원 신청] 버튼 클릭
■ 참고 : http://www.welfare.net

[신한금융그룹]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후원처 : 신한금융그룹

지역사회봉사단

어르신 인지재활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식) 소속 청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대표 김하영, 지은미)는 지난 9월 11일(수) 청주시에 위치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내 교육실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인지재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청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2017년 3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매주 봉사활동을 진행 해오고 있다. 대표 김하영은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발달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sn@naver.com)을 통해 문의의 가능하다.

아산재단 대학(원)생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전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설립 이념에 따라 1977년 설립되어 의료사업과 사회복지 지원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대학(원)생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복지 관련 아이디어가 현실에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공모주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혁신적·융합적 아이디어

공모대상 대학(원)생 (전공 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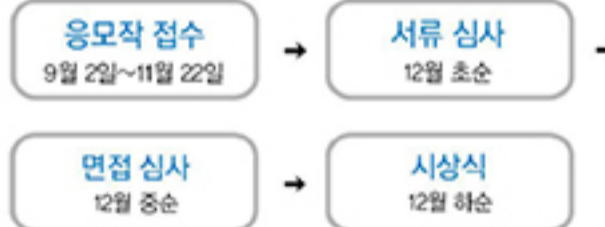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asanwelfare@mc.seoul.kr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기획안 각 1부
· 서취 양식은 아산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에서 다운로드

접수기간 2019. 9. 21(월) ~ 11. 22(금)

시상내역 최우수 1명 300만원 / 우수 2명 200만원 / 장려 3명 100만원

심사 - 시상절차



심사기준 창의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



유의사항

- 개인·단체 모두 지원 가능하며, 단체 지원은 팀원 수를 5명 이하로 한정함
· 표절 및 아이디어를 도용한 프로그램의 경우 시상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상 이후 해당사항이 발견될 경우 상금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함
· 정부·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시상 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수상작의 사용권 및 저작권은 아산재단에 귀속됨
·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팀 02-3010-2566/2550



복/지/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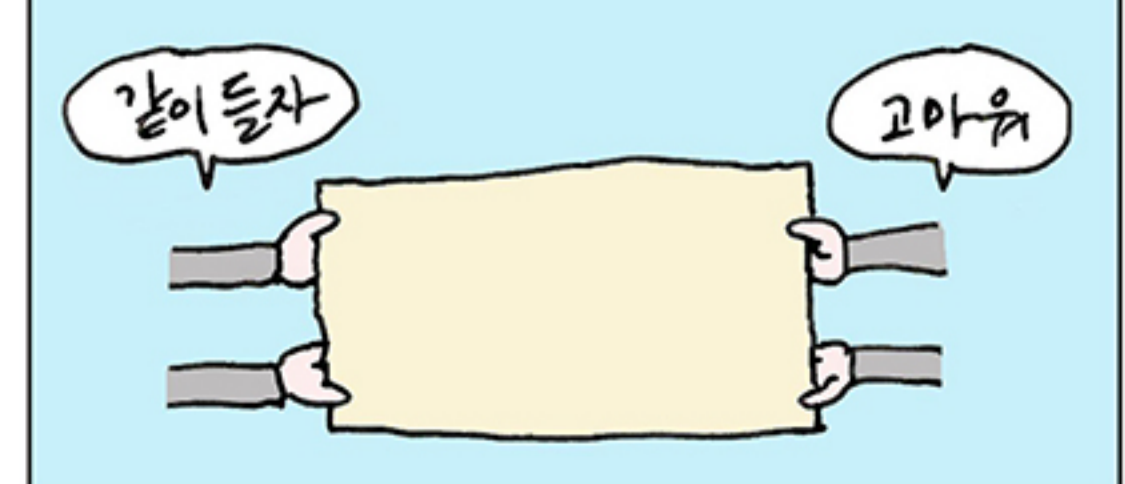
동료애란?

이창신 www.bokmani.com



무조건 덮어주는 것도 아니다

동료애란 동료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당신은 동료입니까?

자원 봉사자 모집

▶ 캠페인 행사 보조
관리센터 : 청주청소년쉼터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231-2676

▶ 구연동화 및 말벗상담
관리센터 : 충북복지연합요양원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235-6988

▶ 이미지 봉사
관리센터 : VIP요양원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253-9988

▶ 영어, 중국어 통역봉사
관리센터 : 목령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216-3060

▶ 경로식당 봉사
관리센터 : 충주시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724-3345

▶ 초등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 미라클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296-1003

▶ 발달장애인 적응지원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295-2505

▶ 업무보조
관리센터 :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291-0199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267-4590

▶ '세발자전거' 멘토 모집
관리센터 : 어린이재단 청주사회복지관
활동기간 : 9.1 ~ 10.31
전화번호 : 043-250-1226

* 자료출처 :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 자료출처 : www.vms.or.kr